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학술대회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보급하고자 2001년 9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이후 20년 동안 한국언어문화교육 분야에서 학자 간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한국언어문화학의 발전을 이끌고, 후학에게 학문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학회 창립 후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워크숍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에 첫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매년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현지 한국어문화교육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 첫 발간한 학술지 ‘한국언어문화학’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며, 2019년에 ESCI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학술상 ‘한국언어문화학 신진 연구자상’을 통해 실력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언어문화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 왔고, 다양한 관련 분야와 협력하면서, 한국어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주년 기념식을 통해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해 온 학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현재의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한국언어문화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학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기념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집에는 우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걸어온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여 어렵고 힘든 곳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담아 사회적 기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는 한국어를 배워 전 세계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귀한 인재에게 줄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해외한국봉사단원연합회(KOVA)의 장학 사업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뜻에 동참하여 따뜻한 마음을 보태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님,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분야 이웃 학회인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박기영 회장님, 이중언어학회 김지형 회장님,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우창현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특강을 해 주실 광주교육대학교의 신동광 교수님, 세종학당재단의 박충식 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학회에 참석해 주셔서 회고사를 해 주실 성기철 초대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발전된 학회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회 임원진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임형재 부회장님, 이미향 부회장님, 정다운·김은정 총무이사님, 김성조·이수미·이향·장미라 연구이사님, 정다미 총무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준비위원회의 성지연·유소영·조수진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소영 이사님께서서는 학술대회를 위해 소중한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서출판 하우의 박민우 대표님, 보고서 김홍국 대표님, 도서출판 박이정 박찬익 대표님, 소통 최도욱 대표님, 한글파크 엄태상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세잎누리의 제갈규동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높은 학문적 성취를 거두었으며 열띤 토론과 적극적인 제언을 통해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지면 확대와 성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참가하여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장향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장향실 회장님과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그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고찰해 한국언어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매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는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대면 디지털 교육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대비하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더 뜨거워진 한류는 한국어 학습 수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더욱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와 정신을 담은 한국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한국어 교육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활발한 활동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 세계 82개국에 있는 세종학당 234개소를 통해 학습기반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도 확대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창립 20주년과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계신 학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로 뜻깊은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장항실 학회장님과 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언어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학회원분들의 헌신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도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명하고 환경 변화를 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국제교육원도 시대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재외동포 교육과정을 포함한 각종 연습 프로그램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원격교육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외 현지에서 개최해온 한국유학박람회도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국내 대학들이 각각 홍보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도 말하기 평가에 인터넷 기반 시험 도입을 시작으로 전 영역 IBT 도입을 위한 전 영역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국어 교육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공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한국어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언어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 애쓰신 학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

축사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의 언어문화와 세계 다른 지역의 언어문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세계로 보급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체계적 학문영역 구축은 물론 한국 언어문화 교육과 해외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언어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학술지로 인정받은 ‘한국언어문화학’을 출간하는 등 한국언어문화를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7년 설립 이후 전세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한글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어 학습은 민족 정체성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 역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의 연구 활동은 우리 차세대 동포는 물론 전세계 1,800여 개의 한글학교 학생들과 15,000여명의 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그 주제가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그 내용과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방식에서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방식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우리 재외동포재단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에 시행한 한글학교 교사연수 사업은 국제언어문화학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협조해 주셔서 함께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내실을 기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회를 준비하신 장항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김성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과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언어 문화 연구와 교육의 성장과 함께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20년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학술대회에 축하의 말씀을 덧붙이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창립된 2001년은 ‘한국어 세계화’가 국가적인 화두였던 해로 기억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고,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교재 개발과 교사 교육 등을 주제로 한, 지금의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다진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리고 연계 학문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비롯한 한국어교육계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애써 주신 연구자, 교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물리적인 교실을 디지털 교실로 전환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온라인 전용 과정을 개설하는 등, 디지털 방식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어교육계에 주어진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도 다가오는 20년을 준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두의 말뭉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과 같은 말뭉치의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말뭉치는 현재 산업계와 학계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올해부터 2차 중장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연구 사업에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장향실 회장님과 임원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축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학회활동을 통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남기신 연구자님들과 모든 학회 관계자, 여러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매년 수준 높고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와 성과를 통해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분야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한국어교육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국어 교육 방법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동안의 학문적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도 온라인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AI 한국어 선생님 등 모바일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장항실 학회장님과 많은 학회 관계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자의 마음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발전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세종학당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박기영입니다.

2001년에 창립되어서 20년 동안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이론 정립 그리고 그 실천적인 적용에 앞장서 오셨고 이제는 또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상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학회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국제한국어문화학회 INK의 창립 2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국내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도 매년 해외에서 개최를 해 오셨고 그걸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의 발전과 이론적인 성과의 실천적인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의 곳곳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마도 점점 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국제한국어문화학회가 해야 할 학술적인 연구와 그 연구의 실천적인 적용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 10년 뒤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빠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한국어문화학회가 30주년 맞이하게 될 때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한껏 더 그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강한 학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게 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도 축하드립니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평가, 또 문화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초점을 맞춘 이번 학술대회도 급변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오시고 발전시켜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지금 회장님이신 장향실 회장님, 그리고 학회 회장단과 임원진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어문화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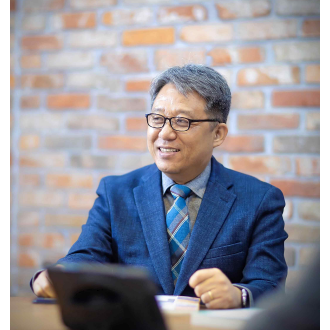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박기영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언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김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하게 된 이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마련된 것을 마음으로
부터 또한 축하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탐색했고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한국언어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로 확산해 가는 것에 주력하는
학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빛나는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오셨고 또 한국어 언어 문화 교육의 발전을 이룩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이중언어학회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런 동반자로서, 동지로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발전
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장향실 회장님과 임원진 선생님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런 노고와 노력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학회 창립 20주년, 또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학술대
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언어학회 회장
김지형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 우창현입니다.

장향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선생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남긴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지금의 한국어 교육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앞으로의 20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회장
우창현